

ML야구에 입이 짹!...삼성천하의 뿌리는 85년 베로비치

(미국 플로리다주)

김종건의 아날로그 베이스볼

85년 삼성, 좌충우돌 미국 상륙작전

2012한국시리즈 우승이 결정되던 날 삼성 류중일 감독은 책 한 권을 애기했다. 다저 웨이(Dodger Way)라는 책. SK와의 한국시리즈에서 우승을 결정해준 번트시프트와 페이컨트&슬래시를 언급한 뒤였다. 1985년 삼성 라이온스가 최초로 미국 본토에서 전지훈련을 소화하고 귀국길에 가져온 책이었다. 프로야구 창설 3년 만에 메이저 리그를 만난 삼성은 야구의 천국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문명의 충돌이었다. 그 때의 기억을 되돌아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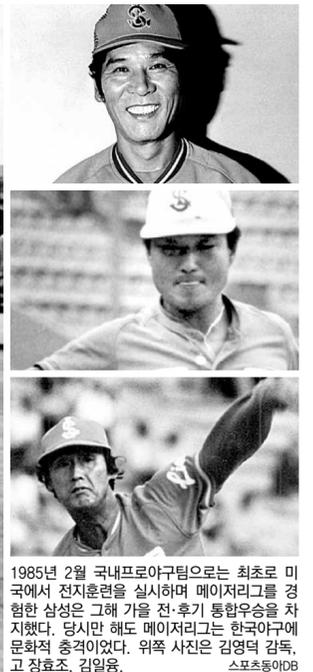
●1985년 2월 28일 미국행 비행기를 타!

멀고 먼 길이었다. 비행기를 3번이나 갈아타고 도착한 플로리다주 베로비치. 선수들은 장거리 비행에 익숙해졌다. 비행기 통로에 누워 잠을 자면서 갔다. 2월 플로리다의 날씨는 좋았다. 다저타운은 4개의 경기장과 8개의 배팅훈련장, 웨이트트레이닝장 등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호텔 수준의 숙박시설과 극장, 클럽하우스, 당구장, 수영장, 테니스 및 농구코트도 구비했다. 지금 봐도 훌륭한 시설이지만, 그 당시 삼성 선수들은 화려한 시설에 먼저 주눅이 들었다. 선진야구를 체험하기 위한 미국행은 1982년 10월 피터 오말리 LA 다저스 구단주가 이경희 삼성 구단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약속한 기술제휴에 따라 진행됐다. 1984년 롯데와의 한국시리즈에서 패해 우승을 놓쳤던 이경희 삼성 감독의 각오는 남달랐다. 엄청난 훈련을 통해 반드시 우승을 차지하기 위한 전지훈련지로 베로비치를 생각했다.

●시행착오의 시작...감독과 매니저, 그리고 모기

첫 문명의 충돌은 훈련이었다. 다저스는 처음 방문한 한국프로야구팀을 위해 예의를 갖췄다. 파견 나온 레드 애덤스(투수), 레오 포사다(타격), 치코 페르난데스(수비), 모리 웰스(주루) 코치들은 전설적 존재였다. 고등학교생에게 대학 교수를 붙여준 격이었다. 토미 라소다 감독도 훈련장을 찾았다. 지도 방법은 달랐다. 실전용보다는 기본적 기술부터 가르쳤다. "왜?"라는 질문을 유도했다. 코치가 얘기하면 선수가 무조건 따르는 훈련이 아니었다. 의문이 생기면 선수가 이해할 때까지 토론했다.

훈련시간도 짧았다. 양보다 질을 따지는 메이저 리그식 훈련. 김영덕 감독은 그 훈련이 양에 차지 않았다. 불만이 많았다. 라소다 감독은 자신과 함께 카트를 타고 훈련장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자며 손을 내밀었지만, 김 감독은 거부했다. 라소다 감독은 그런 김 감독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에게 스프링 캠프는 경기를 위한 재미있는 준비였지만 우리는 힘든 노동이었다. 김 감독은 야간훈련도 시켰다. 다저스는 하지 말라고 했지만 김 감독의 고집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훈련장에 조명을 켜고 삼성 선수들이 모였다. 야간훈련은 오래가지 못했다. 다



1985년 2월 국내프로야구팀으로는 최초로 미국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하며 메이저리그를 경험한 삼성은 그해 가을 전·후기 통합우승을 차지했다. 당시만 해도 메이저리그는 한국야구에 문화적 충격이었다. 위쪽 사진은 김영덕 감독, 김경환, 김일용. 스포츠동아DB

ML 다저스와 제휴...미국서 첫 전지훈련 다저타운 화려한 시설·선진 시스템에 주눅 첫 친선경기 등만 감지된 사구 연발 화제도 번트시프트 등 기술 습득...그해 통합우승

류중일 감독도 14일간의 신세계 알찬 경험 "그때 들고온 책 '다저스 전법' 우승 밑거름"



선수 시절 류중일 감독

저스에서 그렇게 한 이유가 곧 밝혀졌다. 조명을 보고 날아온 모기를 비롯한 날벌레 때문에 훈련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유니폼과 땀복을 땀고 물어대는 모기는 정말 지독했다. 통역도 문제였다. 영어가 능통한 통역사들이 많았지만, 야구용어를 몰랐다. 고(故) 김종원 홍보팀장 등이 나서야 했다. 용어에 얽힌 에피소드 하나. 다저스가 선수들의 방을 배정할 때였다. 당시 김중만 매니저의 방을 가장 큰 것으로 줬다. 2명의 김 씨 성을 가진 매니저. 감독도 매니저, 주루도 매니저였던 것이다. 헛갈렸다. 김중만 매니저는 이후 자신을 '머니맨'으로 불려달라고 했다. 그는 훈련 비로 쓸 현찰을 007가방에 담아 가지고 갔다.

●1985년 삼성이 경험한 14일간의 신세계

다저스 인스트럭터가 알려준 야구는 지금까지의 야구와 전혀 달랐다. 기본에서 시작하지만, 선수들의 창의력을 요구했다. '다저 웨이'의 저자 알 캄파니스 부사장은 야구 전법, 라소다 감독은 팀 운영, 모리 웰스 코치는 주루와 도루에 대해 강의했다. 다저스는 삼성 코칭스태프와 선수들이 새로운 야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보고서도 만들었다. 다저스가 삼성에 건넨 이 평가서는 나중에 삼성 야구단 선수운영의 기본이 됐다. 다저스는 일본프로야구 출신의 김일용, 송일수에게는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 처음 코치가 된 수비 담당 천보성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삼성 선수들은 2주간의 훈련이지만 알찬 기술을 배웠다. 베이스러닝에서 팔목상대했다. 1962년 메

이저리그 최초로 한 시즌 100도루를 돌파한 모리 웰스의 지도는 큰 힘이 됐다.

1985시즌 삼성은 2사 1·3루서 통리드 더블스틸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안타 없이 점수를 뽑았다. 올해 한국시리즈의 키워드가 된 번트시프트도 그때 완성했다. 릴레이, 커트플레이, 런다운, 픽오프 플레이 등 기본에 바탕을 둔 기술야구를 상대팀은 당해내지 못했다.

●첫 메이저리그와의 경기, 김시진이 화제에 오르다!

삼성 200승 투수 리우스는 첫 경기 뒤 "삼성 선수들의 수준이 더블A 정도냐"는 현지 매스컴의 질문에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더블A에 있어본 것이 17~18년 전이어서 나보다는 인스트럭터가 더 잘 알 것 같다."

김영덕 감독은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순간 원위치를 돌아왔다. 삼성은 1985년 사상 최초로 전후기 통합우승을 차지했다. 77승1무32패, 승률 0.706의 성적이었다. '다저 웨이'는 훗날 주간야구에서 '다저스 전법'이라는 이름으로 번역 연재됐다. 삼성은 1988년 또 한번 다저타운을 방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제사정을 이유로 계획은 취소됐고, 일본 노베오카로 갔다. 이후 어느 팀도 베로비치를 찾지 않았다. 2012년 다저스는 한국 프로야구팀 한화 이글스 류현진에게 280여만원의 포스팅 금액을 안기며 유니폼을 입히려려 한다.

삼성 타자들의 타구는 내야를 벗어나지 않았다. 타격 3관왕 이만수도 '타격천재'라는 고(故) 장효조도 마찬가지였다. 메이저리거가 사용하던

공을 처음 만져본 삼성 선수들은 "우리 공에 비해 물렁해서 거리가 안간다"고 말했다. 그때 우리 타자들은 몰랐다. 삼성 타자들을 무력화시킨 것은 스피드가 아니라 무브먼트였다. 점수차가 벌어지자 다저스는 마이너리거들을 올렸다. 톰 로웬이 4개의 4루를 연속해서 내렸지만 삼성의 도루 실패로 점수를 내지 못했다. 최종스코어는 7-0 다저스 승리. 삼성은 이후에도 마이너리그 혼성 팀과 2차레 더 경기를 했다. 4-0, 7-5로 졌다. 통산 200승 투수 리우스는 첫 경기 뒤 "삼성 선수들의 수준이 더블A 정도냐"는 현지 매스컴의 질문에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더블A에 있어본 것이 17~18년 전이어서 나보다는 인스트럭터가 더 잘 알 것 같다."

●첫 문명의 충돌 이후

김영덕 감독은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순간 원위치를 돌아왔다. 삼성은 1985년 사상 최초로 전후기 통합우승을 차지했다. 77승1무32패, 승률 0.706의 성적이었다. '다저 웨이'는 훗날 주간야구에서 '다저스 전법'이라는 이름으로 번역 연재됐다. 삼성은 1988년 또 한번 다저타운을 방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제사정을 이유로 계획은 취소됐고, 일본 노베오카로 갔다. 이후 어느 팀도 베로비치를 찾지 않았다. 2012년 다저스는 한국 프로야구팀 한화 이글스 류현진에게 280여만원의 포스팅 금액을 안기며 유니폼을 입히려려 한다.

전문기자 marco@donga.com 트위터 @kimjongkeon 편집 | 강문규 기자 nikkang@donga.com 트위터@nikkang

KBO 남자프로농구 (13일)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연속
1	전지연	12	9	3	0.750	-	1패
2	SK	13	9	4	0.692	0.5	2패
3	모비스	13	9	4	0.692	0.5	3승
4	인삼공사	12	7	5	0.583	2	1승
5	오리온스	12	6	6	0.500	3	3패
6	KT	13	6	7	0.462	3.5	2승
7	삼성	13	6	7	0.462	3.5	1승
8	LG	12	5	7	0.417	4	1패
9	동부	13	4	9	0.308	5.5	2패
10	KCC	13	2	11	0.154	7.5	1승

●부문별 중간순위

선수	팀	득점	평균 득점	리버운드	평균 리버운드
① 파블로 인삼공사	19.1	① 전태종 오리온스	6.5	① 벤슨 LG	11.8
② 해인스 SK	18.4	② 박지현 동부	6.4	② 윌리엄 오리온스	10.8
③ 브라운 전지연	17.4	③ 이원민 전지연	5.5	③ 브라운 KCC	9.5
④ 이승준 동부	17.0	④ 김태술 인삼공사	5.4	④ 해인스 SK	9.1
⑤ 김영환 LG	16.4	⑤ 함지훈 모비스	4.9	⑤ 파블로 인삼공사	8.5

팀	득점	리버운드	실점	실점률
삼성 (6승7패)	64	28	14-19	33
SK (9승4패)	54	36	23-8	42

팀	득점	리버운드	실점	실점률
삼성	64	28	14-19	33
SK	54	36	23-8	42

TOTO 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KBO 여자 프로배구 (13일)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점	실점	연속	
1	IBK기업은행	3	3	0	8	273	255	3승
2	GS칼텍스	2	2	0	6	172	140	2승
3	한국생명	3	1	2	4	282	283	1패
4	현대건설	3	1	2	3	272	260	2패
5	인삼공사	3	1	2	3	231	261	1승
6	도루공사	2	0	2	0	119	150	2패

●부문별 중간순위

선수	팀	득점	세트당 블로킹
① 휘트니 한국생명	125	① 양효진 현대건설	1.00
② 알렉시아 IBK기업은행	85	② 정대영 GS칼텍스	0.86
③ 아나 현대건설	72	③ 배미 GS칼텍스	0.71
④ 배미 GS칼텍스	53	④ 최유정 GS칼텍스	0.67
⑤ 니콜 도루공사	52	⑤ 휘트니 한국생명	0.62

팀	득점	실점
인삼공사	3	1
한국생명	1	3

NFL 아메리칸 콘퍼런스 (13일)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점	실점	연속	
1	뉴잉글랜드	6	3	1	10	177	147	3승
2	피츠버그	4	3	1	7	177	147	3승
3	인디애나폴리스	4	3	1	7	177	147	3승
4	샌디에고	4	3	1	7	177	147	3승
5	피츠버그	4	3	1	7	177	147	3승
6	피츠버그	4	3	1	7	177	147	3승

NBA (13일)

순위	대서양지구	승	패	순위	중부지구	승	패	순위	남부지구	승	패
1	뉴욕	4	0	1	밀워키	4	2	1	마이애미	6	2
2	브루클린	3	2	2	시카고	4	3	2	애틀랜타	3	3
3	필라델피아	4	3	3	인디애나	3	4	3	살트레이크시티	2	3
4	보스턴	4	3	4	클리블랜드	2	5	4	올랜도	2	4
5	토론토	1	6	5	디트로이트	0	8	5	워싱턴	0	5

●부문별 중간순위

순위	북서지구	승	패	순위	태평양지구	승	패	순위	남서지구	승	패
1	오클라호마	6	2	1	LAC	5	2	1	샌안토니오	6	1
2	미네소타	5	2	2	피닉스	4	4	2	멤피스	5	1
3	덴버	4	4	3	LAL	3	4	3	뉴올리언스	3	2
4	유타	4	4	3	골든스테이트	3	4	4	달라스	4	4
5	포틀랜드	2	5	5	새크라멘토	2	5	5	휴스턴	3	4

팀	득점	실점			
보스턴	101-95	시카고	미네소타	90-82	달라스
마이애미	113-110	휴스턴	밀워키	105-96	필라델피아
애틀랜타	95-87	포틀랜드	유타	140-133	토론토
오클라호마	92-90	디트로이트	피닉스	110-100	덴버

경기중합 (13일)

●하나는행 2012 MBC 최강전(안양호계체육관)
 ●남자부 단체인 1차전 준결승전=삼성생명 3-0 동성삼다수 ●여자부 단체인 1차전 준결승전=대한항공 3-0 포스코에너지, 삼성생명 3-2 KDB대우증권

●2012 전국 남녀우수선수 선발대회 겸 2013 국가대표 예선대회(김천체육관)
 ●63kg급 남자부 개인전=① 김주홍(한성고), ② 박한솔(청주공고), ③ 장정연(용인대), ④ 전태현(선인고) ●74kg급 남자부 개인전=① 김현우(상명대), ② 윤진영(청주공고), ③ 김유진(조선대), ④ 한용민(김포시청)
 ●49kg급 여자부 개인전=① 김재아(한체대), ② 심재영(부천정보산업고), ③ 이유빈(서울체고), ④ 김미소(조선대) ●67kg급 여자부 개인전=① 이정민(광산구청), ② 남정수(한체대), ③ 우스미(조선대), ④ 김원경(경신여대)

●2013년 국가대표 3차 선발전(남해 공설운동장)
 ●남자부 개인전 종합 순위=① 정성원(경희대), ② 김범민(배재대), ③ 임동현(청주시청) ●여자부 개인전 종합 순위=① 정혜진(나), ② 한경희(전북도청), ③ 김민정(현대모비스)

오늘의 프로농구

●2012-2013 KB국민카드 프로농구 (14일)
 동부 (원주체육관) 인삼공사 오리온스 (고양체육관) KCC
 오후7시, KBSN스포츠 오후7시, SBS-ESPN

오늘의 프로배구

●2012-2013 NH농협 V-리그 (남자부) (14일)
 러시안캐시 (아산이순신) LIG손해보험
 오후7시, MBC스포츠플러스

●2012-2013 NH농협 V-리그 (여자부) (14일)
 IBK기업은행 (화성종합실내) GS칼텍스
 오후5시, KBSN스포츠

경기예고 (14일)

●2012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인천문학, 오후7시)
 ●챔피언결정전 1차전=인천코레일-고양KB

●2012 중국오픈 배드민턴슈퍼시리즈프리미어(중국상해 푸둥 안센체육관)
 ●드래곤-이글스

●2013 KPLGA 정규투어 시드전(무안)
 ●하나는행 2012 MBC 최강전(안양호계체육관, 오후1시)

●2012-2013 아시아리그(중국 상하이)
 ●드래곤-이글스

●2012 전국 남녀우수선수 선발대회 겸 2013 국가대표 예선대회(김천체육관, 오전9시30분)

●2013년 캄파온드 국가대표 2차 최종선발전(남해 공설운동장, 오전9시10분)